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제염

문화재청은 지난 4월 30일 소금을 만드는 '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 제 134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이 지정한 제염에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자염법'과 1907년에 도입되어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천일염전' 두 방식 모두가 포함된다.

과연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얼마나 특별한가에 문화재로까지 지정됐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먹거리를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시절, 인간은 식량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인간의 의지보다 자연이 허락해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던 시절에 식량의 장기 보관은 생존을 위한 숙명이었다.

인류는 두 가지 해결책을 찾아낸다. 하나는 건조와 다른 하나는 소금 절임이다. 덕분에 인간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건조와 소금 절임의 발견은 인류 문명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건조는 기후만 적당하면 어디서나 가능했지만 소금 절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에는 두 가지 달레마가 있었다.

소금의 주성분은 나트륨이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는 필수 미네랄의 일종이다. 부족하면 죽음이 이를 수도 있다. 그런데 나트륨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염분(소금)으로 섭취해야 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등은 음식 섭취를

통해 공급 받을 수 있지만 나트륨은 염분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 그 방식을 DNA 속에 각인시켰다.

인간을 비롯한 육식동물은 사냥을 하면 우선적으로 동물의 피부터 마셨다. 동물의 혈액 속에 포함된 미량의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대로 방법을 찾았다. 코끼리는 코로 땅을 파서 흙 속에 포함된 염분을 섭취했다. 염소는 암석에 포함된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 90도에 가까운 암벽을 기어 올라 바위를 핥았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염분 섭취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곡식을 재배하며 정착 생활에 접어들자 인간은 소금과 관련한 두 번째 딜레마에 봉착한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증발시키거나 소금 광산에서 암염을 캐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인류 문명의 대부분이 강 하구에서 시작된 것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도 필요했지만,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바다도 가까이 있어야 하고, 기온이 높고 햇볕과 바람이 쐬기 시작한 것은 문명이 탄생하고 한참 지난 후의 일이다.

그런데 바다가 있다고 해서 어디서나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바닷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넓은 갯벌이 있어야 하고, 기온이 높고 햇볕과 바람이 충분해야 했다. 곡식을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환경이 필요했다. 곡식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소금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금은 인류 최초로 국가를 넘나드는 무역 상품이 되었다. 향신료 교역 훨씬 이전에 소금 교역이 있었다. 소금은 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한 것도 소금 무역의 패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은 소금 무역을 위한 '소금길'(Via Salaria)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소금에 있어서만큼은 로마제국이 부럽지 않은, 축복받은 땅이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소금을 만들 수 있었다. 남해와 서해에는 갯벌도 풍부했다. 소금을 얻기 위한 천혜의 환경이 따로 없었다.

심지어 국토의 대부분은 산이었다. 이는 곧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풍부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소금을 얻기 위해 '자염법'을 사용했다. 자염은 말 그대로 바닷물을 끓여서 얻는 소금이다. 하지만 단순히 끓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3.5% 정도. 이를 그냥 끓이면 떨어진다. 바닷물의 염도를 최소 10%까지 올려야 했다. 염도 높은 바닷물을 얻기 위해 갯벌에 우물을 파거나 독을 박기도 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자연 건조 방

식이 고안되었다. 1907년 소금의 대량 생산을 위한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자염법은 그 과정 자체를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자 문화였다.

한국의 식문화는 이렇게 얻은 소금으로부터 잉태되었다. 풍부한 소금은 발효의 근간이 되었다.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시작된 소금 절임에 미생물이 관여함으로써 발효가 진행되었고 이를 활용해 김치와 장아찌를 만들었다. 삶은 콩을 발효시킨 메주를 소금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거듭 발효시킴으로써 된장과 간장을 얻었다. 다양한 해산물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킴으로써 젓갈을 얻었다. 된장, 간장, 김치, 장아찌, 젓갈이 빠진 한국 음식을 상상할 수 없듯이 소금이 빠진 된장, 간장, 김치, 장아찌, 젓갈 또한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금은 곧 한국 음식의 근본이며 시작이다.

제염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한국 음식의 원천에 대한 각성이다. 한국 음식의 원형과 전통은 특정한 시대, 지역, 계급에 매몰되지 않고 한반도에서 탄생한 모든 음식의 보편성에서 찾아야 한다. 소금을 이해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다. 134번째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남다르다.

<맛 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김권천 조선대병원 내분비외과 교수

국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이다. 목의 정중앙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갑상선암인데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 환자들의 공포감이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고 부른다. 이는 갑상선암이 생존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는 온순한 형태의 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한 암이 나쁜 암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일부 암은 진행이 빠르고, 목에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갑자기 뼈나 전신으로 퍼져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서 '두 얼굴의 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암은 암이다. 자칫 방심했다간 치료 시기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한다. 이

두 얼굴의 암, 갑상선암

호르몬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로서 인체 세포들의 대사 과정을 적절히 촉진시켜 모든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와준다.

갑상선암은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과량 노출되거나 유전적(RET) 요인, 비만,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가능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최근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커진 경우, 쉼 목소리 또는 성대 마비가 동반된 경우, 결절이 주위 조직에 고정된 경우, 결절이 매우 딱딱한 경우, 결절과 같은 쪽의 경부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는 갑상선암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두경부에 방사선을 조사한 병력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결절의 크기가 매우 클 때도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인 갑상선암과 부인암, 유방암 등은 수술 후 운동 요법, 식이 요법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뤄져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축적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암종에 비해 착한 암이라고 불리며 어느덧 친숙하게 다가온 갑상선암의 완치율이 높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갑상선암 또한 수술 후 관리가 꼭 필요한 암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할 가이드라인은 다른 암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며 꾸준한 운동도 해야 한다.

암 병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새로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갑상선암 생존자 역시 새로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는데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 생존자 중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갑상선암 생존자는 갑상선 호르몬 억제 치료로 호르몬이 너무 많은 상태인 '불형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형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는 부정맥이나 협

심증, 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심혈관계 질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일상의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암 예방에 필수사항이다. 비만,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여러 암과 관련 있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 다. 따라서 갑상선암 생존자 역시도 갑상선암의 재발이나, 다른 암으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갑상선암 생존자들은 암 치료 경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갑상선암 역시 착한 암이라는 오해 속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꾸준한 운동은 환자가 아니어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육류를 줄이되 면역력 유지를 위해 적당한 단백질은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더욱이 잠은 면역력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만큼 불면증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숙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고



김광호 여수 여영고 교사

어디서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들린다.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 사랑해라. 너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 나의 삶을 살게 해줘!"

가수 양희은과 악동뮤지션이 부른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왜 가슴이 이렇게 울렁일까. 왜 머리는 이렇게 어지러울까.

우리 일상에서 정해진 답만 말해야 한다. 그 답을 말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의기소침해지며 일명 낙오자로 불린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른들의 언행과 학교에서 안내하는 지식 및 생활이 정말 학업일까? 학생들의 의식을 공중 무여버린 그 삶의 과정이 진정 올바른 것일까?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 역할을 처음 해 본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와 세대가 전

21세기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한 단상

해주었던 언행과 교육 내용을 은뎠으로 체득하고 내면화하면서 산다. 부모라는 사람 또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에(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전수받은 그 내용을 가치관으로 내재화하여 일상을 산다.

문제는 기성세대가 받은 교육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아래에서 행해진 교육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지배하기 위하여 '조선교육령'을 발표한다. 즉 일제 강점 동안 한국인의 민족주의를 억압하고 일본에 동조하기 위해 실시한 일제의 교육법령에 따라 학교를 운영한다. 일제 패망 이후 미군정은 자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도입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라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 미래와 정면대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미래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더 나쁜 것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평등화

와 획일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정곡을 찌르는 고언을 했다.

기성세대 여러분은 아직도 부모 세대의 교육을 자녀가 학교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많은 부모들이 교육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현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자녀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줄 뿐, 자녀들의 건강한 삶과 미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선행과 즐거움이 사라진 교육 장소다. 또한 일방통행식 교육만을 하는 곳이다. 창조적인 인간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막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성세대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왜 공부하느냐"라는 질문과 대답에서 단초를 찾고 싶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보편적이며 규격화된 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말하게 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 부모님과 나를 위

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버린,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말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나만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나'를 '우리' 속에 가두어 두었다. 이런 교육은 이성이 지배하는 집단 속에서 자기를 구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집단이 '나'를 수용하고 융화하며 소화를 버렸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사고와 똑같은 답을 했을 뿐이다.

이런 장백한 지식이나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자기를 내동댕이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럴 때 교육만이 꿈뿔거리 호기심이라는 욕동자를 탄생시킨다. 또한 그 호기심은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충만한 청춘으로 발전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교육 방향은 "답을 찾아내는 것(Finding answer)"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Solving problem)'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성세대는 통렬한 자성과 함께 교육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社說

'13일간의 열전' 지방선거 공정한 경쟁을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 늘부터 시작돼 다음달 12일까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7기째 맞는 민선 지방자치의 참 일꾼을 자임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 2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1명, 기초의원 311명 등 423명의 자치 일꾼을 이변 선거에서 새로 뽑는다. 공보 등록 결과 966명이 출사표를 던져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광주 서구 갑과 영암·무안·신안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공식 선거전 개막에 맞춰 여야 정당은 출정식을 열어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세 물이에 나섰다.

초반 선거전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서 여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무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

면서 유권자들의 관심 저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창과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과 언론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허용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선거법 위반은 4년 전보다는 줄었지만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나 흑색선전 등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기간 후보자들은 정책 제시를 통한 정당당당한 경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 지방 선거가 '꿀벌과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신호 켜진 전기차 투자유치 꼭 성사시켜야

전국 지자체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친환경 자동차 투자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여당 원내대표가 "광주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임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투자 유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연간 10만 대(투자 규모 1조2000억 원) 생산 규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투자 유치 대상과 투자 방식, 자동차 제조 방식 모두 열린 상태에서 유치가 나서고 있다.

투자 유치 대상은 완성차 기업과 주요 부품 생산 기업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투자 방식 역시 하나의 기업이 참여하는 '단독 투자'와 두 개 기업 이상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공동 투자', 시와 완성차 업체 및 다수의 지역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합작 투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 500억 원 이상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투자액 기준 최대 10% 이상의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광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친환경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빛그린 국가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선 6기는 물론 민선 7기 집행부는 대규모 친환경 전기자동차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유망하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 성패에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無等鼓

언젠가 운전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을 듣다 빙긋이 웃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기관사와 함께 음악을 듣고 싶다는 한 청취자의 사연이었다. 그 청취자는 언젠가 기분이 울적한 날 전철을 탔는데, 전철 안내방송을 하는 기관사의 어떤 격려에 힘이 난 적이 있었단다. 한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7호선 기관사가 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그때 방송으로 만난 그 기관사이겠거니 하면서 축하와 함께 음악을 같이 듣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다든 것이다.

기관사가 무슨 상을 수상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 들어가

함께 된 역무원

보았다. 사연 속 기관사는 '2018 열차 방송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7호선 운전자 이형권 씨였다. 그의 방송은 '감성 방송', '행복방송', '꿀보이스'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는 2007년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살아야겠다." 그는 안내 방송을 통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 마음먹었고, 안부를 묻거나 날씨를 전하는 방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얼마 전 나도 기역에 남는 지하철 역무원을 만났다. 마지막 전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역 직후한 뒤 역에 도착해 마차가 출발했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다. "전철이 바로 전 역에서 방금 출발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게이트를 지나 뛰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 그 역무원이 옆에서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나보다 몇 걸음 앞서 달렸고, 다행히 마차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었다. 역무원과 함께 달린 순간은 몇 십초에 불과했지만 누군가 날 위해 '함께

뛰어 주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지하철을 탈 때면 늘 그 역무원이 떠오른다.

올해 아파트 앞에 생긴 산책로에 철쭉 등 온갖 꽃들이 피고 나무가 우거져 느긋하게 걷는 기분이 그만이다. 한때, 얼마 전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 '천리향 뽕아가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같이', '함께' 라는 말의 의미를 많이 놓치고 사는 요즘이다. 모두가 내 실속 찾기 바쁘고, 내 앞가림 하느라 정신없다. 작은 배려의 마음이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 준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경 제 부 220-066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0663)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문 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